

배포 일시	2023. 1. 12.(목)		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 안재혁 (044-201-3964)
	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담당자	사무관 박정호 (044-201-397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GTX-B 민자 구간 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 지정

- 재정 구간은 설계 본격 착수하고 1분기 내 사업자 선정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12일(목) GTX-B노선 민자 구간(인천대입구~용산, 상봉~마석)의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, 대우건설 컨소시엄((가칭)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 주식회사)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○ 협상대상자가 앞으로 국토부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, GTX-B노선 민자 구간 건설 및 재정 구간(용산~상봉)을 포함한 전 구간\* 운영(40년)을 맡게 된다.

\* 민자구간 : 인천대입구 ~ 용산, 상봉 ~ 마석 62.8km, 재정구간 : 용산 ~ 상봉 19.9km

□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주부터 즉시 협상에 착수하여, 국민들께 약속드린 ‘24년 착공과 ‘30년 개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.

○ 이번 정부 협상단에는 한국교통연구원, 국가철도공단, 서울 회계법인, 법무법인 세창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술, 재무, 운영,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협상을 진행한다.

□ 한편, GTX-B노선 재정 구간(용산~상봉)도 ‘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설계에 본격 착수하고, 1분기 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.

- 1~3공구는 1월 16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한편, 현재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4공구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당초 3월에서 2월 말로 앞당겨 선정하여 사업 진행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.
  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GTX-B노선의 시·종점역에서부터 서울역 또는 청량리역까지 30분 이내 도착하고, 모든 역에서 3분 이내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.

